

'87년 사료곡물시장 전망



권 배
(한국사료협회 전무)

I. 서론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는 한 750만톤을 초과할 전망이다. 당초 농수산부에서는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을 623만 톤으로 정하고 이에따른 사료수급계획을 정했었다. 실제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당초 농수산부가 축두수 파악과 가축의 사료급이량 책정에서 의도적인 감축으로 배합사료 생산량을 적게 책정한 원인도 있지만 예상을 훨씬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같은 예상을 초월한 금년도 배합사료생산량은 국내 축산불황의 여파속에서 진전되어 왔기 때문에 축산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추세로 진전될 것인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대가축불황이 아직도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배합사료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농수산부에서는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축산두수와 70년대초의 값싼 사료곡물 공급으로 급격히 늘어난 대가축사양에 있어서 배합사료 의존율이 늘어난 현상 등을 국내부존자원인 조사료 이용과 국내자급 가능한 곡류 등을 가지고 어떻게 수급을 맞추어 나가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배합사료 원료시세 하락을 주도해 왔던 미산 옥수수시세도 최근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부존자원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농수산부가 계획했던 원료쿼터관리로 인한 축산두수조절과 수입 원료 제한 조치로 인한 외화절감 효과가 시행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배합사료 수급계획에는 다소 현실성 있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배합사료 수급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내년도 사료수급계획을 논하는 것은 어려워며,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국제사료곡물시장의 수급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사료용원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국제사료곡물시장의 변화가 국내배합사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II. 세계 옥수수 수급전망

국제 곡물시세의 가격선도자로서 세계 옥수수 수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산 옥수수수장은 금년도 세계 곡물시세의 폭락을 주도해왔고,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풍작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농무성(USDA)이 추정하는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약 2억880만톤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기록했던 지난해의 수준에는 못미치지만 평년작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금년도 생산량이 지난해의 2억 2,518만 톤에 비해 7.3%나 감소했음에도 금년도 미국의 옥수수 총공급량은 3억 1145만톤으로 지난해의 2억 6733만톤에 비해 16.5%나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미국산 옥수수의 총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서 넘어오는 이월 재고량이 계속 누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년도 기초재고량은 1억 257만톤으로 지난해의 기초재고량이 4186만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무려 2.45배나 늘어난 셈이다.

미국산 옥수수의 총공급이 16.5%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옥수수 수요는 겨우 2% 수준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과거 옥수수

를 이용한 석유대체용 연료산업 역시 최근의 저유가로 인해 이용이 감소하고 있어 미국내 옥수수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USDA에서 전망하는 미국의 수출전망 역시 3,556만톤으로 지난해의 3,152만톤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미국산 옥수수의 총공급수준이 16.5% 증가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총 수요는 4.1% 증가에 그쳐 내년도로 넘어가는 기말재고량은 더욱 커져 1억 3998만톤에 이르며 지난해의 1억 257만톤에 비해 36.5%나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인해 지난해 10월 미산 옥수수 시세는 평균 부셀당 235센트를 나타냈으나 금년에는 대략 155~180센트 수준을 보여줄 전망이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보면 금년도 총 세계 옥수수 기초재고량은 1억 2250만톤에 비해 약 29%나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미산 옥수수 수급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II. 세계 옥수수 수출전망

최근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83년 미국이 PIK정책을 시행하자 수입국들이 자국내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수입선을 아르헨티나,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다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쟁수출국들인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은 농업생산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과거 농산물수입국이던 EC와 중공 등이 수출국으로 돌변하였고 소련 등 대수요국들의 곡물수요도 해마다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그동안 옥수수에만 의존하던 사료곡물 수입국들이 점차 옥수수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옥수수를 대체하는 소맥과 수수 등으로 다양화 시켜 나가면서 소맥의 주요 수출국들인 호주, 캐나다, EL 등도 미산 옥수수시장을 잠식해 들어갔다.

이와같은 사료곡물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해 미산 옥수수의 재고 수준은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상태를 보여왔고, 미산 옥수수 시세는 근래 보기도문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가격권내에서 가격회복이 전망되고 있는 옥수수의 금년도 국별 생산량을 보면 심한 기복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산 옥수수가 7.3% 감소할 전망이다. 반해, 주요경쟁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1.6%,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5%, 중공은 11.3%씩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한발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흉수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중공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했던 태국산 옥수수의 금년도 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지난해의 520만톤에 비해 무려 19.2%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금년 태국 옥수수 생산지역이 극심한 한발로 인해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세계최대의 수입국이었던 소련의 옥수수 생산량은 최근 해마다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금년도에는 1,500만톤으로 지난해의 1,350만톤에 비해 11.1%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소련의 옥수수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소련에 대한 옥수수 수출에 주력해왔던 아르헨티나 등이 동남아시아인 일본, 대만, 한국 등으로 수출선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중공, 태국 등 옥수수 수출국들 역시 일본, 대만 등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동남아시아 개척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미산 옥수수에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산 옥수수가 점차 가격하락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들 수출국들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동남아시아를 놓고 태국, 중공, 미국의 옥수수 수출경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 기타 곡물 및 대두박 수급전망

옥수수 가격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대두 가격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대두수급현황을 보면 금년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5,421톤으로 지난해의 5,712만톤에 비해 5.1%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재고수준은 1,459 톤으로 지난해의 860만톤에 비해 69.7%나 증가하고 있어 전체 총 공급수준은 지난해보다 4.7%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수요와 수출수요로 구성되는 총수요량은 지난해보다 2.6% 밖에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말재고는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미산대두시세는 부셸당 510센트였는데 반해 금년에는 450~490센트 수준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대두의 금년도 기초재고는 다소 증가하였고, 생산량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수요가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대두의 기말재고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옥수수가 과잉공급과 재고누증으로 장기적인 안정세가 전망되는 것 처럼 대두 또한 장기적인 안정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두박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고 있

기 때문에 금년도 기초재고는 지난해보다 감소하였고 금년중 생산이 다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의 증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결국 금년도 기말재고는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같은 세계적인 대두박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금년도 미국의 대두박가격은 지난해의 대두박시세와 비슷한 가격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옥수수, 대두시세와는 달리 강세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사료수급정책상의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는 곡종 다변화 조치로 과거 수개년간 국내 배합사료 업계가 이용해 왔던 옥수수 이외의 곡종 즉, 소맥, 수수, 호밀 등의 내년도 수급사정은 비교적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수와 호밀 등은 내년도에도 옥수수의 수급과 가격변동에 따라 일정량은 보조곡물로서 활용이 되어질 것이고 특히 식용소맥에서 분류된 사료용 소맥은 캐나다, 호주, EC 등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될 것이다.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합사료의 주종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등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가격하락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가격하락 현상은 금년 후반기를 기점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이미 미산 옥수수 시세가 금년 11월이후 계속 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기타 태국 및 중공산 옥수수와 수수 등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캐나다산 소맥의 공급사정이 크게 호전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내년도 곡물시세는 회복국면을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해이후 판매경쟁에 휩쓸려 가격인하를 거듭해 왔던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내년 이후 다소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원료가격수준만 제대로 유지해 준다면 어느정도 원가인상요인을 배합사료 공장에서 흡수할 수 있겠지만 내년 이후 현재의 곡물재고누증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새로운 농산물 수출정책을 전개해 나갈 때 원료시세와 제품시세의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배합사료원료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축가들도 배합사료가격 인상가능성도 감안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대가축의 불항회복이 미지수인 상태에서 여러 관측수단을 통해 양돈의 불항조짐마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년도에는 국제적인 사료곡물수급이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 축산경기가 회복되고 과다하게 증가된 가축두수의 감축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울러 축산물 소비홍보에 맞추어 축산물 과잉재고를 해소할 수 있는 수요증가가 이루어 질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수출산업의 호조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내년도 축산물 수요를 결정지을 것들이며 배합사료 생산량과 원료공급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돼지·소출하안내



잘 길러
잘 팔자

정 확 한 시 세 정 보
높 은 지 욕 을
신 속 한 운 반
 계류, 도축, 경매 **관리 철저**
 친 절 한 판 매 상 담
 시 간, 경 비 절 약

사단
법인

대한양돈협회
서 울 지 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8-10
 ☎ 294-5060 (야) 982-8043 성남 48-3216